영암군, 올 재정 신속 집행 총력

보고회 열고 대책 논의…상반기 2386억 초과 목표

영암군이 경기침체 극복과 지역민 경제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암군은 최근 주요 사업부서의 팀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보고회'를 열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주민체감도가 높은 민생 사업부서 가족행복과, 농업해양정책과, 농식품유통과, 군민안전과 등의 지방재정 추진계획과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영암군은 앞서 행정안전부와 전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평가'에서 각각 우수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총 1억14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각 부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액 2386억원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목표액은 올해 영암군 전체 예산 8116억원 중 신속 집행 대상액 3938억원의 60.6%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보고회 참석자들은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영암군의 공공재정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다짐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천재철 기획감사실장은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적극적 신속 집행이 절실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의 임무를 상기하며 각 부서는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국립목포대, 내년부터 '음악공연기획과' 신설

공연·기획·현장 실습 과정…17명 선발 3명은 실기전형

국립 목포대학교가 음악공연기획과를 신설·운영한다.

내년 신설되는 음악공연기획과는 공연, 기획, 현장 실습 등 다양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기존의 정통 클래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장르를 아우르며 음악에 특화된 공연 기획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다.

실연·창작자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예술단체 및 전국 100여개의 국공립 문화재단에 취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국내 대학들이 예술경영, 문화예술경영 등 예술과 경영학을 결합한 학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목포대 음악공연기획과처럼 음악인들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살린 공연 기획 전문 인력 양성을 하는 학과는 드물다고 목포대는 설명했다.

입시는 학생부 교과 및 종합 전형으로 이뤄지며 (선발 인원 17명), 정원의 약 15%(3명)는 실기전형으로 선발한다. 졸업 조건은 예술단체 취·창업, 음악 관련 자격증 취득, 졸업 공연 등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완도항~덕우도 항로, 새 여객선 투입

'섬사랑5호' 20일부터 운항
모황도·생일도·황제도 기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문수)이 새로 건조된 섬사랑5호를 기존 여객선을 대신해 오는 20일부터 완도항~덕우도 항로에 투입한다.

섬사랑5호〈사진〉는 위탁운영 선사인 (주)해광운수에서 완도항에서 덕우도까지 편도 36㎞를 하루 2왕복 운항하며, 운항 중간에 모황도와 생일도, 황제도를 기항한다.

섬사랑5호는 183t급 차도선이다. 여객정원은 96명, 평균속도 13.5노트, 적재 능력은 중형승용차 기준 15대로 기존 여객선에 비해 커졌으며 적재 능력과 운항 속력도 향상됐다.

목포해수청은 지난 13일 완도항에서 주민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섬사랑5호 취항식을 겸한 여객선 시설 개방 행사를 가졌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더 크고 빨라진 섬사랑5호가 취항하면 해상교통 편의향상은 물론 완도 도서지역 농수산물 수송이 원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여객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 동부·종합수산시장 노후 전선 정비

공모사업 선정…9월까지 국비 2억5000만원 확보

목포시가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동부시장과 종합수산시장의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의 분전반, 차단기 및 배선기구 교체, 옥내배선공사 등 노후전기설비 개선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월 실시한 '2023년 제2차 노후전선정비사업' 공모에서 동부시장, 종합수산시장이 선정돼 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들 2개 시장에 대한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7월 공사에 들어가 9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외에도 동부·자유·청호·종합수산·중앙식료·항동·신중앙시장 등 7개 전통시장에 대해 전기, CC-TV,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추진해 쾌적한 쇼핑공간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 5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진 중앙식료시장과 수산물 집산지인 항동시장은 노후화된 지붕을 정비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오래된 시장일수록 화재예방을 위해 노후전선 정비가 꼭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전통시장의 전기시설을 정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 햇마늘 알뜰 구매 찬스

쇼핑몰 '해남미소' 기획전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https://www.hnmiso.com)에서 햇마늘 소비촉진 할인 기획전을 운영한다.

올해 수확한 햇마늘을 가정에서 바로 드실 수 있도록 깐마늘과 통마늘 형태로 시중보다 최대 25%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해남 일원에서 재배되는 마늘은 대부분 남도종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쪽이 크고, 매운맛이 덜해 생식용이나 양념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마늘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니실린보다 더 강력한 살균과 항균력이 있는 알리신을 포함하여 다이알린 다이설파이드, 메틸시스테인 등 여러 항암물질을 가지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제철 마늘은 어떤 보약보다 좋은 건강한 먹거리로 알려져 있다"며"일년내내 쓸 고품질 해남마늘을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태양광을 이용한 안심 조명을 조도면 섬마을의 어두운 골목길 곳곳에 설치했다. 〈진도군 제공〉

진도 섬마을 밤길, 태양광으로 환하게

4개 마을 86곳에 안심조명 설치…전기료 절약·친환경 두토끼

진도군이 태양광을 이용한 안심 조명을 조도면 섬마을의 어두운 골목길 곳곳에 설치했다.

진도군은 조도면 유토, 창리, 곤우, 관매마을 등 4개 마을 골목길에 '진도 242 소행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6500여만원을 투입, 태양광 안심조명 86개소 조성을 완료했다.

안심 조명은 태양광 에너지를 낮에 충전해 밤에 빛을 내는 장치로 별도의 전기 사용 없이 설치, 친환경·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안심 조명으로 가로등 불빛이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범죄 예방과 밤길 귀가 시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현대삼호重, 6월은 '외국인 근로자의 달'

매주 금요일 안전문화 캠페인…각국 문화 알리고 안전 수칙 홍보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최근 외국인 근로자 증가 추세에 발맞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존 임직원과의 화합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섰다.

현대삼호중공업은 6월 한 달을 '외국인의 달'로 정하고, 매주 금요일 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삼호중공업 사내 협력사에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2612명이다. 주요 4개국 외국인 근로자 수는 ▲베트남 634명 ▲우즈벡 529명 ▲네팔 448명 ▲태국 221명 등이다.

지난 9일 베트남의 날 행사를 진행한데 이어 16일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날, 23일은 네팔의 날, 30일은 태국의 날로 지정했다. 해당 날짜에는 각국의 대중 음료가 전 직원에게 제공되고 있다.

사내 매체를 통해서는 각 나라에 대한 소개와 함께 회사에서 근무하는 해당 국가의 근로자와 각국의 문화 등을 알리고, 해당 직종에 맞는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사내방송 시간에는 외국인 근로자 인터뷰를 편성해 회사 생활 중 문화적 차이로 겪는 어려움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 방영하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

7월과 8월에는 '한국의 날'을 운영해 대한민국 전통음식인 식혜와 약과를 나눔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의 문화를 홍보할 계획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타지에서 고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향수를 달래고, 소통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지게차·굴착기 등 10대 무상…이달까지 신청

목포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3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목포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노후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엔진교체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한 엔진이 탑재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다.

지원대수는 10대이고 엔진종류에 따른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저공해조치신청·건설기계)을 통해 인터넷 신청해야 하며, 최초등록일부터 오래된 순으로 선정된다.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해당 공고문이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은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에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면서 "노후건설기계 소유자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